

1분기 주담대 vs 신용대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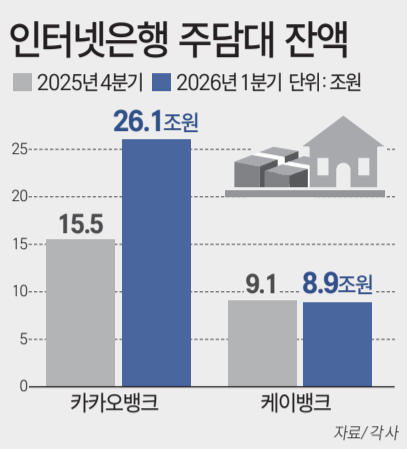
하반기 ‘개인사업자대출’ 승부수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인터넷은행 대출 실적·전략

케이뱅크 1분기 가계신용 잔액 7.1조 당기순익 332억 전년비 107% 증가
카카오뱅크 1분기 주담대 잔액 26조 연체율 0.51%, 고정이하여신 0.53%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1분기 가계대출 성장 전략이 같았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반면 케이뱅크는 신용대출을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대한 것. 하반기에는 양사 모두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해 1분기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7조145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35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는 3010억원 줄어든 8조2410억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2025년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주담대 잔액을 줄였고, 신용대출 잔액은 2025년 1분기부터 4분기 연속 늘었다.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수익성 강화가 필요했던 영향이 크다. 케이뱅크의 1분기 순이자손익은 1252억원으로 전

분기와 견주 3.5%,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 증가했다. 수익성 지표인 NIM(순이자마진)도 1.97%로 지난해 2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이로인해 케이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1억원)보다 106.8%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을 낮추고 주담대를 늘렸다. 올해 1분기 신용대출 잔액은 18조212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71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세담보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26조840억원으로 같은 기간 5150억원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이 줄어든 이유

는 건전성관리 때문이다. 주담대는 마진이 적은 편이지만 연체되는 경우가 적다. 카카오뱅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분기 기준으로 각각 작년 말과 동일한 0.51%, 0.53%를 유지했다.

한편 양사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이인영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 목표치로 각각 3965억원, 6673억원을 받았다. 대형은행들이 8000억~9000억원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자산 규모에 비해 목표치가 적은 편이다.

양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면서도 보증·담보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 1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보증·담보 대출 비중은 각각 69%, 43%로 전년 동기간 56%, 26%에 견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IPO를 앞두고 수익성 개선이 중요했고, 카카오뱅크는 건전성 방어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양사 모두 개인사업자대출 시장 공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대표가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장애인 재활·일자리 등 지원

생애주기·환경 고려 5개 사업 구성
아동·청소년에 학습보조기구 지원
특수학교 디지털학습환경 구축 나서

하나금융그룹은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 진출과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을 고려해 ▲재할 ▲교육 ▲주거 복지 ▲일자리 ▲금융서비스 등 총 5개 사업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다각적인 맞춤형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우선 하나금융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이번 통합 지원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재활 및 학습 보조기구 지원 사업 기부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적기에 보조기구를 교체하지 못하는 저소득 복지 사각지대 장애 아동·청소년 총 300명에게 맞춤형 기구를 지원한다.

기업훈련기, 보행훈련워커, 자세유지 의자 등 신체활동을 돕는 재활 보조기구

를 250명에게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입출력기와 립스틱·안구 마우스 등 학습 보조기구를 50명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장애 아동 재활 전문 기관 15곳에도 보행 트레이너 등의 기구를 지원해 의료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취업 의지가 있는 발달·청각장애인 및 경계성 지능인 총 85명을 대상으로 채용 연계형 취업 교육을 진행한다.

장애특수학교의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직무 교육을 수행하는 전국 특수학교 3곳에 실제 근무환경과 유사한 ‘디지털 실습실’을 구축해 학생들의 기술 교육을 돕는 한편, 특수학교 교사들을 위한 전문성 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의 노후된 장애인 거주시설 20곳을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 및 차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한국장애인사랑 협회와 연계해 자립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함영주 회장은 “장애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금융권, 생산적 금융 내재화 노력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에너지 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재설정·전략 논의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에너지 산업은 AI(데이터센터), 탄소중립, 에너지안보의 세 축 아래 종래 전통에너지 중심의 자원·채굴산업에서 대규모 설비·인프라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기술의 국산화와 공급망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 투자비용 증가, 화수기간 장기화, 인프라 투자비중 확대 등에 대응해 금융권의 장기모험·인프라 자본 투자, 재정 및 민간금융과의 협업을 통한 혼합금융의 중요성도 커졌다”라며 “에너지의 지역 편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산업변화 및 금융의 역할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하고, 각 금융사들의 에너지 금융지원 관련 모범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해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본 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스턴컨설팅 그룹, KB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기관들이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생산적 금융 참여 현황을 점검했으며, 향후 투자계획도 제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누누만 생산적금융이 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정부가 생산적 금융 역량이 내재화·체계화되도록 주요 과제를 추진해나가자”라며 “오늘의 에너지 산업 논의처럼 생산적 금융 협의체가 산업과 금융을 잇는 가장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이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

여신협회장, 박경훈·윤창환·이동철 ‘3파전’

내달 4일 면접 후 투표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제1차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입후보자 서류를 심사, 후보군(순리스트)을 압축했다. 박경훈 전 우리금융캐피탈 대표, 윤창환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 이동철 전 KB국민카드 대표가 최종 후보

군에 올랐다.

1962년생인 박경훈 전 대표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출신의 금융권 인사다. 우리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경력을 쌓았다. 이후에는 우리금융지주에서 경영 기획총괄 부사장, 재무 부문 부사장을 역임한 뒤 우리금융캐피탈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현재는 한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윤창환 전 수석은 1961년생으로 전남

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와 동국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월간조선 프리랜서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정책수석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 AI 정책 특보단장 등을 지낸 30년 경력의 정무 분야 인사다.

이동철 전 대표는 1961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KB금융그룹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금융인이다. KB생명보험 경영기획본부 부사장과 KB금융지주 전략총괄 부사장(CSO), KB국민카드 대표이사, KB금융지주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재선 기자 wotjs4187@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

노인복지 증진 일한... 임직원들 참여

미래에셋생명은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과 마포구 내 취약지역 경로당을 찾아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부서별 봉사단을 편성해 모든 임직원이 매년 8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함께하는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는 경로당 어르신과 미래에셋생명 임직원 봉사단의 교류로 세대 통합과 함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진행했

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악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직접 부채와 선캡을 만들며 답소를 나누고 추억을 쌓았다.

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생명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기업 핵심가치에 따라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보험업의 본질인 사랑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